東亞日報 夕刊 七月七日(日)

社說

早老病을退治하자
―老齡敎授大會의敎訓―

一

사람은 죽기를 싫어한다。그러면 늙기도 싫어하여야 할것이다。그러나―그러하고 하나、늙어지면 죽게되기때문이다。그러므로 늙기를 싫어하는것이 우리가 實際로 보는 事實이라고 하겟다。그러나 우리社會에 잇어서는 늙기를 조하하는듯한 現象을 發見할수잇는것이니 이것은 어떠한 理由이라고 하지 아니할수 없는것이다。

二

[illegible] 其他 여러가지 方面으로 永遠의 生命을 일우려고 애쓰고 잇는 한편에 老衰하기를 조하한다는 矛盾한 事實을 發見할때에 우리는 놀라지 아니할수 없는바이지마는 그事實이 直接 우리 社會에 잇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보면 더 한層 寒心하지 아니할수 없는바이다。어찌하여서 우리는 늙기를 조하하는가? [illegible]

三

우리의 肉體나 精神이나 할것없이 그것을 쓰지아니하면 退化되어가는것이니 우리가 [illegible] 活動이 그에 따라서 活氣를 잃고 [illegible] 老衰하여지는것이니 警戒하지 아니치 못할點이다。

四

이러한 點으로 보아서 昨六日 [illegible] 에서 開催되엇던 老齡敎授大會라 하는것은 [illegible] 早老病을 退治하는 데에 效果가 잇을것이 [illegible] 早老病退治에 效果가 잇을 것을 우리는 믿는바이다。

伊軍東阿에續續出征
伊首相、出征兵에게
에國征服을力說
파시스트勇氣를鼓吹

【羅馬에부터 伊太利六日發】 무쏠리니伊首相은 六日 스스로 飛行機를 操縱하야 에부리港으로가서 方今 東아프리카에 向하야 出發하려는 黑衣連征隊에게 向하야 激烈한 訣別演說을 하고 只今까지 없든 赤裸裸한 語用로서 黑人征服을 力說하엿다 그要旨는 如左

이제 歷史上最重要한 一頁이 諸君의손에 依하야 以이러는것을 銘記하라 伊太利兵은 마침내 黑人을 敗北시키는것이 事實인것을 諸君의 손에依하야 하나더하라 四萬의 伊國兵이 十萬의 에國人에게 包圍되어 孤軍奮鬪한 아시아의 戰爭을 除하면 勝利는 恒常吾人의 우에잇엇다 余는 이제 東아프리카에向하야 出征하는 子息들의 背後에서서 이活躍을 監視하고잇다 全世界는 파시스트伊太利의 이嚴肅한 勇氣를 조금도 又日지間에 認定하지 안흘수없나

北平市長留任

【北平六日發】 冀察政務委員會와 [illegible] 立場에잇는 北平市長 袁良氏는 이미 中央政府에 辭表를 提出中이든바 六日政府로부터 慰留의 電報를 接하고 引續하야 留任하기로 決定。

伊·에兩軍의 衝突危機切迫

에國在留米國人에 即時撤退를命令
◇英國人도不遠撤退할듯◇
米國務省當局言明

【워싱톤六日發聯合】 國務省當局은 如左히 言明하엿다 에國在留 米國人은 現在總數百二十五人인데 그中約百十人은 傳道에 從事하고잇는 者이다 米國政府는 萬一을 考慮하야 이미 一週間以前부터 米國人의 退去를 勸告하고잇는 터이다 [illegible] 에國在留米國人에게 [illegible] 撤退命令을 發하게되엇다고 [illegible]

【런던六日發聯合】 英國政府는 에國在留英國人에게對하야 近間 撤退命令을 發하고잇는데 外交界는 이것으로써 伊·에의 軍事衝突의 危機는 切迫하여오고잇다 한다

켈로그不戰條約의 缺◇陷◇暴◇露
協定必要의意見提頭

【華盛頓特電六日發】 위싱톤外交關係에서는 에國政府의 不戰條約引用要請에 [illegible] 條約의 缺陷이 거듭 明白히 暴露된것이라고 解釋하고 此際 此種條約의 性質을 充分히 吟味하야 將來는 有效한 協定으로써 國際關係에 卽하야 行하는것이 希望된다

에國提訴에對한 米國政府回答
에國外相手交

【아디스아베바六日發聯合】 에티오피아政府가 米國政府에 對하야 行한 提訴에 對한 米國政府의 回答은 六日正午 米國代理公使 아로부터 에國外相에게 手交되엇다 [illegible] 米國政府의 回答은 歐洲問題에의 介入을 避하는 것이나 同時에 紛爭에 參入치 아니토록 努力하는 同時에 에國政府는 伊、에의 諸條約의 [illegible] 米國政府가 眞摯히 再考를 希望하는 [illegible] 되엇다

【[illegible]】 [illegible] 以前의 條約은 社會情勢의 變化한 今日 이것은 卽時 現實의 國際關係에 適用하려는 것으로 [illegible] 二件은 無視하고 [illegible] 一、各國이 政治的 經濟的 社會的인 地理的 [illegible] 各各 다른事情에 잇으므로 各紛爭의 解決도 局地的으로 行하고잇는것에 對하야 普遍的 統一的 [illegible] 一、條約의 [illegible] 그러한것

米銀輸出入高

【華盛頓六日發】 米國商務省 六日發表에 依하면 六月二十八日부터 一週間에 銀의 輸出入高는 如左

輸出 五九七、九七九弗

輸入 三、二一一、二〇五弗

이라國서銃殺
金銀持出者

【[illegible]六日發】 이라政府는 國內의 金及銀을 持出하는 者는 銃殺할뜻을 六日發令하엿다

日對中第二工作의 根本的方策을確立
◇北中을特別地域으로?

【東京電話聯合】 日本政府는 新生事件解決에 對한 南京政府의 態度如何에 絶大한 注目을 하고잇는데 一方 北中事件의 糾正은 終了하고 對中第二段工作의 具體案作成은 急이라하고 週早부터 外務省을 中心으로 通商兩局聯合協議會를 開催하야 이立案에 着手할터인데 局과도 充分히 協議를 終了하고 對中國策의 根本要綱을 確立하기로 되엇다 對中第二段工作의 重要因子로 注目되는것은 如左한 二點이다

一、中國에 對한 積極的協力의 要求 南京政府 國民黨部는 武器를버린 對日手段으로 前後約二十年동안 排日運動을 國民的觀念으로하야 努力하야왓다 日本政府의 이 誠意에 對한 要求는 繼續하야 現在에 及하엿는데 排日運動에 對한 日本政府의 要求의 強度는 今回의 北中事件新生事件에 잇어서 中國側에 알리도 充分히 認識한것이라고 確信하다 따라서 排日取締와 같은 消極的 積極的要求의 具體的工作에 對한 南京政府國民黨部의 積極的協力을 要求한다

一、北中에 對한 新認識의 要求 日本政府는 滿洲國의 發達에는 努力할 決意를 가지고 그接壤地인 北中에 對하야 新事態의 認識은 絶對不可缺의 것으로서 中國에 要求하는데 中國側에서는 北中을 將來一般領域과 다른特別地域으로하야 政治經濟社會文化의 分野에서 日滿兩國에 對하야 協力을 求할것이다

希臘帝政復活의 國民投票延期

【아테네六日發聯合】 帝政復活의 可否를 國民에게 무를希臘政府의 人民投票는 九月十五日의 豫定을 延期、十一月十五日 執行하기로 決定하엿다

休日市場氣配

▲期米 天候恢復에 月前實需되나 當限度米는 依然困難하야 模樣이어서 氣配不變

▲株式 前途不透明으로 閑散不昧氣配不變

大新 八三、〇〇
東新 一三五、二〇
鐘新 一一三、三〇
日産 六六、〇〇

▲綿絲 不變

米日爲替

【紐育六日發聯合】 本日의 米日爲替

賣 廿九弗十七仙 四高

買 廿九弗十五仙 四高

곤希臘副總理 伊首相과會談
南歐政局에大影響

【아테네六日發聯合】 六日希臘副總理 콘딜리스將軍은 六日午後로마訪問의 旅行에오른데 로마에 在한 三日間의 豫定으로 出發前에 콘딜리스將軍은 如左히 말하엿다 今回의 로마訪問은 伊太利在郷軍人團의 招聘에 應하야 行하는 것으로 全然非公式인것이다 但 사라이우스 內閣의 重要人物인 콘딜리스將軍의 로마行은 무엇인가 政治的意義를 띄인 것이라고하야 一般의 觀測은 잇다 特히 王統派의 熱烈한 戀慕을 삿다는 遠因이 엇는바 무쏠리니首相과의 會談은 南歐의 政治的將來에 重大한 關係가 잇다

外蒙의領土占領을 日滿側에서目標?
할事件及滿洲里會議經過를
조、外蒙外相이聲明

【모스크바、倫敦六日發聯合】外蒙和國務總理兼外相 겐돈氏는 外蒙代表로서 外相은 六日首都우란바토르 各新聞紙에 할하事件及滿洲里交涉의 經過에 關하야 如左한 聲明을 發表하엿는데 그內容은 如左

今年一月 日滿軍隊는 外蒙國內에 侵入하야 領土의 一部及할하廟를 占據한後 蒙古國境前哨와 銃火를相交하야 日本軍이 指揮者인氏는 各名의 死者를 낸 것은 이미報道된바이다 外蒙政府는 戰爭을 避하려고 國境當局에 對하야 軍事行動에 應치안코 和平解決策에 關하야 滿洲國當局과 交涉을 開始할것을 指令하엿다 右結果 去六月六日에 滿洲里에서 滿蒙兩國政府間에 和平交涉이 開始되게 되엇다 그러나 第一回交涉에 參하야 滿洲國政府가 國境事件을 平和裡에 解決하는 意思를 가지는 與否에 疑念을 품게하엿다 日本은 할하廟事件에 關한 外蒙의 平和的解決에 到達하려는 意圖下에 서부氏를 首席으로 代表가 모든 努力을 하고 잇는것은 이미報道된바이다 外蒙政府는 交涉을 하려고 國境當局에 對하야 交涉開始後도 外蒙代表는 誠意를보이지안코 또이번 交涉에서 兩國政府間의 解決交涉에 못어서도 兩國政府間의 問題를 되지안흔 諸問題의 討議를 提議하고 當面의 問題인 할하廟事件 討議에 同意하지안는 狀態이다 滿洲國政府가 故意로 遲延하고 잇는것이 明瞭하게 되엇다 또그後相繼하야 이러한 紛爭에 依하야 日本軍이 策動하고 滿洲國政府의 和平的解決策에 誠意를가지고 잇지안흠을 立證하고 反對로 도리어滿蒙國境關係를 더 一層 重大化하며 또外蒙國領土占領을 目標하고잇는것이다

外蒙獨立工作은 이미 巨額의 支出을 決定하고 大大的 兵營擴張에 着手하고잇다는 今日 如斯하야 잇을 수 없다고 보고잇다 但 英國工業界는 對蒙輸出促進의 目的으로써 政府當局에서 具體案을 考究한結果 向後二個年間 百萬乃至二百萬 파운드를 限度로하야 輸出保險을 行할 方法의 樹立이다

獨逸政府、列國에 建艦計劃을通告
佛伊의建艦內容을注視

【伯林六日發聯合】 獨逸政府는 日本、米國、佛國、英國、伊國政府에 對하야 各各이미 一九三五、六年의 建艦計劃을 通告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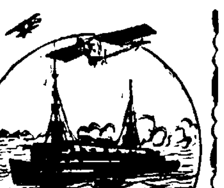
【伯林六日發聯合】 獨逸政府는 六日 日本、英、米、佛、伊五個國政府에 對하야 獨逸海軍建艦計劃의 一部를 通告하엿다고 發表되엿다

卽 通告된것은 一九三五年度及三六年度의 海軍計劃으로서 그大部分은 이미世上에 發表되엿으나 이와같이 獨逸政府가 海軍計劃을 通告함에 그치고 그全部를 發表치아니한것은 히틀러總統의 佛伊兩國政府의 建艦計劃을 明瞭히 알기까지는 그의 全部를 發表하지 안키로한것으로 解釋된다

英銀行의對獨 借款協定說

【런던六日發聯合】 英獨海軍協定이 成立하고 近日은 에國問題를 싸고서 英伊兩國의 對立으로 英獨接近說이 傳해지고잇는 此際 런던의 一銀行이 對獨借款을 協定하엿다는 傳說로 六日의 市場方面은 不少히 動搖되고 [illegible] 政府 [illegible]

最近歐洲 政局의鳥瞰
(完) 俞鎭午



七 新均衡에의길

獨逸의 外交政策表明은 英國과 伊國에서 非常한 好感을 喚起하엿다。그러하야 佛國의 焦燥에도 不拘하고 스트레사會議에서 表明된 英佛伊共同戰線의 步調는 漸次亂調로 들어가기 始作하엿다。

第一 먼저 對獨接近의 態度를 보인것은 伊國이엇으니 그것은 伊에 紛爭에 對하야 國際聯盟 理事會가 에치오피아의 提訴를 受理하엿기때문이다。伊에紛爭에對하야 五月廿四日의 聯盟理事會의 決議로 (一)理事會는 紛爭解決에 對하야 國際仲裁裁判의 進行을 承認하고 時期를 기다릴 것을 承諾하엇다 伊國의 希望은 八月廿五日까지 事態의 推移를 靜觀하고 兩當事國이 解決努力에 期待한다는 趣旨인것이엇다。이決議後 伊國은 다시 親獨態度를 取하지아니하면 아니될 形式上의 聯盟의 面目 이決議案의 形式上의 [illegible] 이것이엇다。

다음으로는 英國이 對獨接近의 態度를 보엿으니 그것은 六月四日부터 正式開催된 英獨海軍會議에서 明確히 나타낫다。英獨會談에서 獨逸이 要求한 艦艇保有限度 對英三割五分이엇다。그러나 對英三割五分의 比率으로 獨逸이 北海에서 英國보다도 優越하다는것은 아니엇다。이것은 英國의 海軍力이 北海에만 集中하여야 할 必要가 잇엇다는 것을 意味하는것이 아니엇다。

이 獨逸의 主張에 對하야 英國側도 容易히 이를 承諾치아니하엿다。勿論 이이에도 佛國은 會議의 外로부터 猛烈히 反對하엿다。그러나 그러한 反對의 理由는

一、獨逸에 對하야 對英三割五分의 比率을 容認하는 때에는 獨伊 海軍力은 佛國海軍力에 對하야 八割五分이 比率이 된다。

一、그런데 佛國은 北海以外에 北아프리카에 잇는 植民地와의 通商路確保의 必要上 地中海方面에도 海軍力을 分散치 안흐면 안되므로 北海에서의 海軍力은 獨逸에 比하야 도리어 劣勢가 된다

一、뿐아니라 佛國海軍은 多數의 老朽艦艇을 갖고잇으므로 獨逸의 新造艦艇에 比하야 더욱더 劣勢가 된다。

이러한 佛國側의 反對와 牽制가 잇엇음에도 不拘하고 英獨海軍會談은 意外로 順調로 進行되어 六月十八日에는 드디어 英外相호—어氏와 獨代表리벤트롭氏間에 覺書가 交換되엇다。그內容은 大體의 技術的部分은 何如間 原則에 잇어서 獨逸의 對英三割五分의 主張을 그대로 容認한것이엇다。

이미 決定이 枝葉問題에 [illegible] 獨逸의 主張에 [illegible] 分析하건대 英國이 [illegible] 이것이 獨逸의 海軍備에 [illegible] 그러나 [illegible] 英國海軍의 [illegible] 英國을 [illegible]

英獨海軍協定에 依하야 [illegible] 佛伊의 反英空氣를 [illegible] 英佛伊三國은 [illegible]

[illegible] 그러나 結局 三月十六日의 獨逸再軍備宣言以來의 國際關係는 [illegible] 歐洲는 [illegible] 잇는것이다。 (七月二日)

今日本紙四面

橫說竪說

年一月以來五月까지 全朝鮮에 六千五百餘名이 傳染病으로 罹하엿다 ▼그中에 一千二百四十七名이 病으로 [illegible] ▼病은 病으로 되어 [illegible] 性質이것이니 病이 [illegible] 잘 알고잇는 한 사람이 [illegible] ▼病이 되게 [illegible]

▼病은 다르다 [illegible] 招하는것은 [illegible]

内務省은 廿五年計劃으로 [illegible] 國民의 [illegible]

夢は腦の煩ひ
꿈을꾸지안토록 安眠하여보라
頭腦가明朗해지고 몸가볍고活動이潑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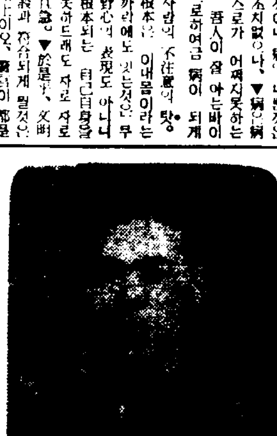
夢 은五臟의疲勞라는것보다도腦가疲勞하기때문이니、腦神經衰弱이甚하면甚할수록惡夢을보는일이만코、特히夢精은頭腦가疲勞하고身體가勞困해지거나와、夢은腦의一部分이 여잇어서、腦를休養할睡眠中은、도리어神經을괴롭게구는故로疲勞가더하야、翌朝에頭腦가흐린것같이陰鬱하고、元氣가없고、눈이개개풀리고、舌苔가생기고、입맛이없고、하야

一 日中不愉快하고、血色나쁘고、健康이漸漸더衰하거나와 이러케腦神經이衰弱한사람들이、腦의榮養을조케하고、腦漿이增殖하면、腦神經이튼튼해저서、夜間은곳곧곧熟眠이되어꿈하나꾸지안케되어、短時間就寢할지라도、참으로疲勞가恢復되어、元氣가생겨서、아츰에일어나보면

頭 腦가大氣조흔날하늘파갈이明朗하고活動力이、刺하게潑溢하고、朝飯도맛잇고、根氣가強해저서、재미잇게일을할수잇는것인데、信州伊那の谷에澤家三百年의家傳秘法으로世上에有名한、滋養強壯劑인養命酒를愛飮하는분들은、

胃 腸이매우조코、食事가맛잇게먹히며밤에는자리에누으면、아츰까지小便보는法도없이、흠빽安眠이되어翌朝는頭腦가明晳輕快하야、氣分이明朗하니이것참조흔藥이라고、사람마다好評이오니、누구시거나한번試驗하시라。

惡夢과不眠으로辛苦
이것으로明朗한氣分을맛보아



宮城縣 川島秀郞

나는商店의事務員이데(?) 腦의過勞가되어記憶力이減退하고、또運動不足으로食慾도減하며、아모리해도몸이勞困하고、밤에는惡夢으로不眠이되어、顏色이蒼白하고心身이共히衰弱하야、내몸이언마는보기가싫게되어、여러가지로治療를하고滋補劑를服用하엿지마는、낮만하야効果도없어煩悶하든것에、紙上에서養命酒를알게되어半信半疑하면서도大瓶을하나사서朝夕食前과就寢前에一杯씩飮用을繼續하엿더니、잣잣食慾이나고元氣가나며조곰無理하엿을때에도疲勞하지안코事務가재미잇게進行하며、根氣가强해지고밤에는꿈도없이푹安眠하게되어、지금에는非常히明朗한氣分으로職務에精勵하고잇읍니다。이것이모도養命酒의所賜라고感謝하고잇읍니다(十年四月一日受付寫眞은本人依然(?)寫眞)

小瓶進呈

貴重한 한藥을 壹瓶山에 두시고 로서、芳香과美味하야먹기조타는것을 實物로紹介하기爲하야 養命酒試飮用小瓶一本과實驗集을우표(?)와 같이 보내오니、東京市世谷區上通四丁目九番地養命酒本舖出張所로兩면(?)葉書로보내시옵

養命酒服用의目的

◆強腦強精의目的
◆神經衰弱잇는분
◆胃腸衰弱한사람
◆不眠숨갑분사람
◆呼吸器弱한분
◆疲勞倦怠한분
◆貧血冷病잇는분
◆根氣薄弱한분
◆虛弱體質가진분
◆產前產後의婦人
◆病後恢復期等等

信州伊那の谷名產 製法日米專賣特許
鹽澤家傳 養命酒

携帶用 一圓五十錢 大瓶 三圓 徳用 四圓

◉全國有名藥店、百貨店、食料品店에잇음

品切되었을때는便宜上東京出張所로注文하시옵 送料本舖負擔代金引換도送料、實費加合합니다

注意 가짜가잇으니 養命酒商標에 注意하시고 사시옵

信州上伊那郡南向村大草 製造發賣元 養命酒本舖天龍館

東京世谷區上通四丁目九番地 出張所 養命酒本舖出張所

電話靑山 五三九八番 振替東京六八八五五番

ClibPDF - www.fastio.com

◇落照‥仁川바다의 一景

上海民團顧問射殺犯 嚴舜奉等明朝送局
朝鮮內秘社組織計劃도綻露
黑色幹部等도同時送致

지난 五월三十一일 인천항(仁川港)에드러온 평안환(平安丸)으로 경기도경찰부로 호송되어온 상해조선인민단 원 고문 이용로(李容魯)의 사살범인 상해무정부주의자 엄순봉(嚴舜奉)(三)과 이규호(李圭虎)(二)를 이래보내 조로서에서 취조중이라함은 기보하바어니와 동서에서는 수일전에 취조가 끝나고 서류도 정리되엇으므로 드디어 八일아츰에 살인(殺人)치안유지법위반(治安維持法違反)등 죄명으로 경성지방법원 검사국(檢事局)에 송치하게 되엇다한다 [illegible]

善山서一名檢擧 奉天으로押送

【선산】 [illegible]

春川에도落雷

【춘천】 [illegible]

平壤에火災 日米商會全燒

【평양】 지난五일오후七시반경 [illegible]

앞산배를움켜쥐며 灼熱무릅쓰고力走
烏山、水原을지나一路서울로!
鐵脚金尙玉君今日入京

동경(東京)으로 기차와배를 타고도만이틀이나 걸리는 경성에는 웬일인지 이기 [illegible] 一시경 [illegible]

岬山에서아이낫다
今朝十時獨立門앞에서 母女가赤十字病院에入院

明日이小暑節

一년중 삼복이 고비 [illegible]

돈三百圓가지고 女學生高飛遠走

[illegible]

人質拉去頻頻으로 移住朝鮮人恐怖
繁茂期를利用、反滿軍이出沒
騷然한咸南對岸地方

【함흥】 [illegible]

中學四年制를 政友會도反對

【동경전화연합】 [illegible]

學窓그리워 飮毒한靑年
上級校志願을父兄이拒絶
平壤慈義院에서治療中

【대전】 지난 七월一일 [illegible]

이서도損害볼 珍奇한訴訟

【지이순】 [illegible]

米大學教授 吉博士入京

[illegible]

"縮地"한지卅年만에 京釜長程을半나절走破
今昔之感의鐵路스피-드
京釜"千里馬"試乘記 (四)

試乘을마치고서 李吉用

[illegible]

揚子江各處汎濫
江岸一帶、濁浪滔滔

【한구七일발연합】 양자강(揚子江) [illegible]

京釜間運轉時間變遷

	釜山發	京城着	所要
明38.5.1	前8:00	後9:45	13:45
草梁→京城間(驛員用列車)			
〃39.1.10	前11:00	後9:45	10:45
草梁→南大門間			
〃40.1.2	前11:00	後9:00	10:00
〃41.11.1	前10:40	後8:20	9:40
釜山→南大門間			
〃42.5.1	前10:40	後8:10	9:30
〃44.4.15	前10:40	後8:05	9:25
〃45.1.1	前11:10	後8:30	9:20
〃45.6.15	後8:50	前5:50	9.00
月·水·土曜日(滿鮮直通運轉)			
大1.10.28	後9:20	前8:15	8:55
2.5.1	後9:50	後6:50	9:00
11.5.1	前10:00	後7:50	9:50
昭1.6.15	前9:10	後7:00	9:50
8.4.1	前8:20	後5:00	8:40
9.11.1	後7:20	前3:05	7:45
10.6.3	前7:35	後1:35	6:00

◇속도의스피-드(時速)

郵便配達夫	約六粁五
가마	
人力車	約七粁〇
마라손(孫基禎君)	約一七粁五八
電車(京城府內)	約二四粁
自動車(京城府內)	約三二粁
汽車(普通急行)	約四〇粁
汽車(이번試運轉)	約七七粁
飛行機(旅客機)	約一八〇粁

落雷에一名慘死

【신원】 재령군 하성면 대정리 [illegible]

우물에 배암넣고 罰金卅圓判決 미신으로 일어난 희비극
◇飮料水에關한罪

【평양】 평원군 순안면 [illegible]

八十老婆失踪

[illegible]

運動競技

高商蹴球 嶺南에遠征
十三日京城出發

高等商業蹴球部에서는 [illegible]

男子複式 洲優勝

【電通錫蘭島六日發】 男子複式及混合複式 決勝戰結果는 다음과같다。

男女混合戰

山岸勝

沙里院體育會 事業決定
定期總會를열고

【沙里院】 [illegible]

水泳同友會 創立코大活動

[illegible]

法政6米마린軍0

【上海六日發聯合】 [illegible]

京城과滿洲醫大 兩大豫科對抗

[illegible]

運動界動靜

▲文理科大學蹴球一行은 [illegible]

明日運動

▲籠球 文理科大學對 [illegible]

全英庭球選手權 무디夫人優勝

【電通倫敦六日發】 [illegible]

天氣豫報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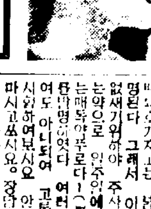
◇晴一時曇

✱날그날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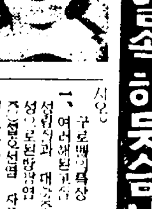
(陽)七月七日 (日曜) (陰)小六月七日 (甲申)

日出 前五、一七	日入 後七、五七	
月出 前九、〇四	月入 後九、一九	
【滿潮】		
仁川	前九、〇五	後九、二〇
釜山	前一一、四	後一一、三
鎭南浦	前〇、五	後一、〇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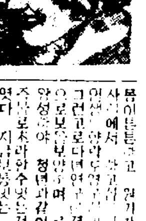
京城德力 金·銀·白金



매독에는 푸로다-가제일이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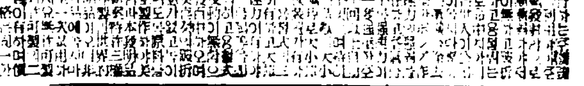
림질 대하증엔 구로벨 제일속히듯습니다



보양보음 젊어지는약은 가이자가제일이오

發賣元 神崎神聖堂 藥品直輸入株式會社

世界的發明 空氣銃新案特許



合名會社 利善工場

高野製作所

本社京販

洪淳洛

朝鮮劇場

戀愛講話

出來ごころ

威 ソキスーキッラ

ClibPDF - www.fastio.com

全南地方旱魃益甚
十日內不雨면狼狽
산간지에는 이앙五할미만
道當局에선代用作研究

【광주】 전남지방에는 한발이 계속되어 금년농사가 우려된다고 함은 본지에 기보하엿거니와 소서(小暑)를 당한 지금까지도 비다운 비가 오지아니하야 一반농가에서는 식량의공포에 싸여잇다는데 저런비가 잇던 저기압(低氣壓)도 조차 보이지아니한다고 한다. 그런데 전남남도 전체적으로 보면 十할가량은 이앙이 되엇으나 그러나 여수(麗水) 순천(順天) 고흥(高興) 등지에는 비가 흡족히 수차나 왓음으로 이앙이 되어 잇는 반면에 광주(光州) 나주(羅州) 장성(長城) 등지의 산간지방에는 이앙하지 못하고 잇다 한다. 그러므로 전남남도 당국에서는 오는 十일까지에 흡족한 비가 오지 아니하면 서숙(粟)이라도 대용작으로 파종하도록 一체 지도하기로 하엿다 한다.

水利地域도刻刻悲鳴
白畓地에서仰天叫呼
임의저수지도 수량 불과 一척
益山全郡에서祈雨祭

【이리】 전조선중에 전북(全北)一대가 한소가 격심하다 함은 이미 누보하엿거니와 수리안전 지대인 수리조합(水利組合)으로써 전북에서 전북평야부의 심장인 익산(益山)은 군도 마르니 그곳위에는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엇다 한다. 임익(臨益)의 임옥(益沃)수리의 수로(水路)에는 아시도불이 흐르는 곳이나 고부리(高阜里)구역 아닌 곳에는 사래 별무고도 한숨만 쉬며 허다못하여 도, 군당국에서 원하기여러번이라한다. 임익(臨益)의 저수량 六인현재 겨우 一척밖에 없어 앞일을 一계경계중이라 한다. 시부면적은 겨우 반분에 불과하고 곳곳에 백답(白畓)이 처처에 정경을 전개하고 잇스며 이사의 八면에 一제히 기우제를 지내는 등 각처에서 율전(栗田)에는 뜻도 하지 아니하고 벼에 대(大豆)소두(小豆)가 발생되어 가하고 一반농가의 모두 기황하야 비가 오기만 고대한다 한다.

男便不在中
女兒分娩壓殺
姦夫婦는被逮

【지남포】 자기 남편이 타처로 일하러 간 사이에 이웃 청년과 정을 통하여 마침내 아이를 분만하자 죄의 적로 복하시남포서에서 취조를 받고 잇든 아록하간부와가 부인이다. 진남포시외 다미면 내덕리 안씨(名美面內德里)의 김 모(金某)는 지난 十七세된 해에 여기 사남하에게로 시집을가서 이래 남편은 남편대로 타처로 이하러 간 사이에 동리 박 모와 관계하여 시간부로 四월 중에 여아를 분만하고 즉시 살해하였다 한다.

群山支局主催의
金剛山探勝團
四十八名昨日出發

【군산】 기보=본사군산지국과 중앙의보군산지국 공동 주최인 금강산탐승단은 본래 二十명 정원으로 모집하엿든 바 대회원에서 이예정하엿든 바 대회장에 정원배이상초과로 四十八명의 예정과같이 작六일 오전十一시 二十분 군산역발열차로 출발하엿는데 그중에는 대성황이라고 한다.

蠕津江橋落成式
【회령】 누보=새시변 가장지로 부터 공사에 착수하야 동서 시교(회령 鷄津橋)는 수일전에 준공되어 오는 十八일 도변시에 거행하는 동시에 낙성축

列車에서여
少婦가卽死
城川鐵橋에서

【함흥】 五일오후十一시 함흥발 북행제五백七열차가 성천강(城川江)철교를 통과할때 이철교를 통행하든 조선여자 一명이 기관차에서 다리밑으로 떨어져 즉사한 사건이 잇엇다. 그러나 아직도 신원이 판명되지 못하야 함흥서에서는 각방면으로 조사중이바 연령은 二十二三세가량된 소부로 며칠전부터 시내 배회하든 미친녀자나 아닌가하여 경찰에 탐사하바되어 지난四일에 간부간부가 체포되어 취조를 받고 잇다고 한다.

年自殺未遂
【나진】 경기도고양군 한서리(高陽郡幸州里)의 안남문지(文善??)는 지난四일 밤十一시경 함북나진항(羅津港)에서 물에빠져 죽으려든 것을 마침부근에서 산보하던 이모가 구제하였다한다. 그 원인은 지난五월 二十一일경 경성에서 부모와 관계에 투수하여 다녀다니고 있는데 이것이 여의치 못하여 죽으려한것이라 한다.

危險한高壓電流
不良工作物이數十個所
急速修理를府에警告

【평양】 최근 평양에는 전선(電線)에 고장이 속속하야 평남 도경찰부에서는 지난달 二十一일부터 一주간에 걸쳐 부내의 가설전선을 조사한 결과 부량전기공작물(不良電氣工作物)이 시가지를 중심으로 수十개소에 발견되엇으므로 만약 그대로 방치하여 둔다면 전기사고를 일으키기 쉬울뿐만 아니라 부민에게 위험하다 하여 시급히 수리하라고 지난 五일 부당국에 경고하엿다 한다.

고흔옷입고싶어
竊盜한妙齡美人

【김천】 지난五일 시천읍내 청흥(淸興)경찰서에서는 남대문시장에서 절도혐의로 체포하엿는데 사건의 내용은 그 피해액이 남기순(南基順)이란 二十세의 여자로서 생활이 곤란하야 고향에서 도망쳐 나온 것이라 한다. 그 여자는 중앙관(中央館)에 와서 부터 일하며 자기 본직에는 여성들이 이어자에게도 가득하야 어찌하면 남과같이 고흔 옷을 입어보나 하든 차에 주야동정하던 차에 현금 十三원과 옷 도둑질하야 절도를 하엿다 한다.

本報幸運券에當籤
金陵幼稚園에寄附

【김천】 경북 김천군 농소면 신촌리의 고 부하는 노원봉(盧元奉)씨는 금반 본보 五주년기념(五周年紀念)에 二등으로 당첨되어 금 시계 一개를 받고 당지금릉유치원(金陵幼稚園)에 금一봉을 기증하엿다한다.

平南棉作地方에
突然黑斑病發生
면화가 즉시 말라 죽어버리어
蔓延 벌서八千町步

【평양】 평남도내 면(棉)작지인 용강(龍岡), 강서(江西) 양군에는 얼마전부터 돌연이 흑반병(黑斑病)이 발생되어 금년면작상 심히 우려케 하는 바가 잇다 한다. 이흑반병은 조선에서는 처음보는 병이며 이병이 면(棉)에 전염하면 면엽(棉葉)에 갈색(褐色)이 띄고 주지 말라죽는 것으로 전염하는 속도도 대단이 빨러서 현재 에는 강서(江西)지방에 약二천여정보 용강(龍岡)지방에 六천여정보에 전염하야 도내면작 총면적 二만여정보에 거이 태반이 피해를 입고 잇다 하야 도당국에서도 대책에 부심하고 잇다 한다.

雇人의貯金橫領
【신안주】 신안주(新安州)역전 ○○의 고용인 림윤하(林允昌)는 손님들에게서 받은 저금을 모아서 당지우편소에 저축하야 그 금액이 一二十원으로 十五원에 달하엿든 바 지난 五일 오후三시경 그 여관에서 유유하고 잇든 장(?)이 몇 번(文區)(?)가 이 돈을 그 돈을 절취하야 도주하엿다 한다.

陰城도惡疾流行
【광혜】 요즘 음성군 음성면 성리(陰城郡陰城面) 二성에 적리(赤痢)가 유행되야 사망자가 五명이고 현재 환자수가 十二명이나 된다는데 경계하야 한다.

江東雹災
【강동】 평남강동군 만달면 임석리(江東郡晩達面立石里)에는 지난三일 오후六시경에 갑자기 우박이 약一분가량이나 내리어 유리창이 깨어지는 동시에 밭곡식은 로 복여 피해는 전멸되었다 하며 기타 농작물에도 손해가 막대하다고 한다.

貧困面書記
公金을橫領

【군위】 경북 군위경찰서(軍威警察署)에서는 지난 二十八일 오후 연시경에 군내 모면 회계원 서모(某面會計員徐某)를 동연구 인하고 회계장부를 압수하야 다가 엄중히 취조를 한다는데 경찰서에서 사건전체를 검대 비밀에 부치므로 자상한 사실을 알수 없으나 동리는 바에 의하면 전기서씨는 원래 빈곤한 가정으로서 과다한 권구에 먹고 살 방도가 없어 그날그날 하구에 쪼들려 가난과 싸워오다가 공금(公金)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된 것이라는 바 一반은 그 사건의 진전을 매우 주목하다고 한다.

二普校新設
醴川郡內에

【예천】 예천군보문(醴川郡普門)개포(開浦)양면에서는 보통학교를 신설하려고 오래전부터 기부를 모집하여 당국의 인가만 고대하든 바 지난二일부로 二개소가 전부인가 되엇으므로 교사건축을 착수하게 된다고 한다.

軍威에紅疫
【군위】 경북군위군 지방(軍威郡地方)에는 홍진(紅疹)이 성행하야 어린아이들의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한다.

海西部三郡에
天蟲이蔓延
벌서 피해면적 六할이상
農作物의被害莫大

【공주】 황해도에서 방(海西)에는 이른봄부터 상가한발로 인하야 농작물이 우려하든 바 요 사이에는 박산하다 가는 충화(蟲禍)가 만연하야 감자와 장마 피해로 비관하는 농가 마 나 사잡으로 지난 장마에 농작물과 전답은 가상으로 해서 송화, 장연, 은율(松禾, 長淵, 殷栗)의 三군이 막대한 피해를 입엇다 한다.

厚昌 洋裁縫 講習會 狀況

咸南서도水害防禦陣
廿一個防水團設置
城川江과南大川等各河川에
五日 保安課에서決定

【함흥】 수해(水害)에 본시 홍수가 심한 함남의 함흥(咸興)과 경흥(慶興) 이원(利原) 북청(北靑) 양 부에서 수해에 대한 방수단(防水團)을 설치하엿다. 이번 함남도당국에서는 지난 五일 도내에서 설치하기로 하엿다. 다음과 같다.

咸興城川江 二個所
咸興 南大川 二個所
永興 龍興江 一個所
北靑 南大川 一個所

이상과 같이 배치하야 완전히 대비하기로 하엿다 한다. 이에 대하야 비상이 증가하는데 이에 종일하는 것 경찰 등은 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위하야 개량하는 것으로 기대가 크다 한다.

仁川府內에
迷兒가激增
每日三·四件

【인천】 인천부(仁川府) 내 우각리(牛角里)와 송수(松峴)에는 근일에 어린애를 잃엇다고 경찰서에 신청하는 부모들이 날마다 두 세 사나 된다는데 부모에는 이에 유의하야 조사하야 매일 三, 四건의 어린아이를 발견하게 된다 하야 부모 어린애에게 주소 써넣은 패를 채워주기를 희망하다고 한다.

食糧도絕乏
浮黃病蔓延
咸南山地民의生活狀
하남도 밭이 기사시작

【함흥】 함남도 토목과에 방영한 (木水)기사는 요지음 함남지대 시찰을 마치고 최근 돌아왓는 바 씨의 말에 의하면 三수군 (三水郡)과 사서(西)사서(二西)면 혜산(惠山)과 甲(興)개면은 수재 피해가 가장 심하다고 그곳은 구제하고 두 창고에 의지해서 가정한 것도 없고 식량도 전연 절미된 형세이며 이외에 하는 공동하는 부황병(浮黃病)에 걸려서 (水腫) 생활이 없는 세상 아니하야 된 조정하야 부양할 수 없는 사람의 부락 송피(松皮) 등 발을 먹어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가마니 나다니는 비참한 현상으로 一가구만 가마니 떠나고 있는자 적지 안은 것으로 그 구제는 시급을 요하는 터이라고 하다.

實業夜間講習會
【신의주】 부내가 성전의 전원(成田)을 위 가는악성의 마진(痲疹)으로 (腦炎)등이 날이갈수록 창궐 되어 사망자가 속출하다고 한다.

草溪地方에
傳染病猖獗
死亡統計五十餘名

【초계】 경남합천군 초계면(草溪面)일대에는 유아의 생명을 빼앗는 마진(痲疹)으로 (腦炎)등이 날이갈수록 창궐 되어 지난五월부터 六월말까지 사망자가 四十二명이고 현재환자수는 五六十명에 달하며 매일 사망자가 속출하다고 한다.

하문(學)에 기관으로서 실업야간강습소를 부내지사정(眞砂町)정원설(鄭元說)씨와 유지수씨의 주선으로 평북공립협회 수상에서 설립개강하게 되엇다 한다. 이는 「스피드」의 입으로 발전하야 나가는 부세에 따라 상점이 한 면하고 (勸學)기관으로서

西朝鮮發展에重要한
多獅島臨港鐵道
먼저남시와 양시사이에부설
去六日에會社創立

【신의주】 평북의 물산 서조선 발전에 그 영향을 미칠 다사도 (多獅島)의 항철도 (多獅島鐵道)를 부설하기 위한 다사도 철도 주식회사(多獅島鐵道株式會社)의 창립총회는 六일 오전十一시二十분부터 부내마전동(麻田洞) 왕자제지사(王子製紙會社)사무소 누상에서 열리어 다음의 사항을 결의하엿다한다.

一, 定款承認의件
二, 發起人으로부터 會社創立에 關한事項報告의件
三, 取締役及監査役選任의件 等 취체역과 감사역선임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다.
▲取締役＝藤原銀次郎, 生田清三郎, 賓野精三, 高島菊次郎, 足立正, 小田久太郎, 加藤鐵治郎, 崔昌學, 池田信, 木村雄次, 橫井半三郎 諸氏
▲監査役＝松本弘治, 吉家敬造, 吉田稚一, 朴熙道, 李觀述 諸氏
그러고 특히 동회사설립의 공로자 다전영길(多田榮吉)씨는 상담역으로 추천되엇다 한다.
동회사는 六백만원의 자본금을 세우며 반분은 소주의 소사를 바라로서 반분은 사원회사로부터 고 남아서 반분은 사원과 외교에 서(南市)와 다사도간의 三十七기로 소 면적 남시와 양시(楊市) 사이의 十八기로 청노를 一백二十만원으로 부설하리라고 한다. 공사는 동十一시五十五분 폐회하고 이어서 역원회의가 열려
▲常務取締役 藤原銀次郎
▲常務取締役社長 生田清三郎
▲常務取締役 賓野精三
제씨를 서정방했하엿다.
동회사 六百만주중 六천주는 발기인 등원(藤原)씨외 二十四명이, 공자(公子)는 등원(藤原)씨 외 二十四명이 四백二천九백四十주를 사전인 의 九천六十주를 다전영(多田榮吉)씨외 五十五명이 가지고 잇는데 제一회불입은 一주五원이라고 한다.

滿浦臨疾扶斯
【만포】 평북만포시(滿浦市)에는 장치부사(腸窒扶斯)가 만연되어 소부一명이 사망되엇다 하다. 지난 六월말부터 시작하야 십여 명에 환자(患者)가 있는데 김병규(金炳奎)의 처 김봉순(金鳳順)이 사망하엿다 한다. 그러고 시가에서는 소독과 방역에 노력중이라 한다.

達城溜池에
疑問의兩屍
무어린 아이시체가잇어
警察이原因調査中

【대구】 달성군 수성면 두산동(達城郡壽城面斗山洞)부근 유지(溜池)에는 九세가량되어 보이는 여자와 한명이 빠져서 시체로 떠오른 것이 五일오후 세시경에 통행하든 사람이 발견하고 수시로 동면주재소에 보고하엿는 바 대구서에서는 서원 수명이 서미(西尾)에서 달려와 대동하고 현장에 검시하엿는데 명대명의 원인이 미상 시체는 一방 그 검시를 마치고 연의 검시하는 一방 그 사인(死因)을 조사하는 중이라 하고 그 원인을 조사중이라 한다.

咸南公職者會
【함흥】 五日오후 一시부터 함흥부청회의실에서 열리게 된 함남중부 공직자회(公職者會合)는 함흥(咸興)과 홍원(洪原) 함주(咸州) 정평(定平) 남(興南)등 五개소에서 공직자 백여명이 참석으로 성대히 열리엇다. 그리하야
一, 鐵道延長敷設促進의件
一, 咸興師範學校設置要望의件
一, 咸興, 興南, 西湖津三地의 一行政區域 結成促進研究의件
一, 咸興 西湖津間 一等道路 改修工事促進의件
등의 가결 결정하고 오후 六시경 산회하엿다.

消息
◇李寅泳氏(高原面長)去五日新任人事次 本報沙里院支局 來訪
◇森博志氏(宜川金融組合理事)新任人事次 去六日本報宣川支局

來訪
◇片岡榮太郎氏(東林金融組合理事)宣川金融組合理事 兼務解任人事次 同上
◇李弘基氏(宣川金融組合理事)江界前川金融組合理事 同上
◇康正福氏(宣川金融組合副理事)新任人事次 同上
◇金璜鉉氏(朝鮮殖產銀行赤崖支店長代理)榮轉人事次 本報南州支局來訪
◇具聖吉氏(湖南銀行東萊支店副支配人)同上
◇永同商工會 第二回總會 七日 永同公會堂에서開催

오다라

七月七日(日曜)

▼午後六時三十分 이야기 沈宜麟
▼六時五十五分 心田開發講話 千古의疑問과人生의意義 金永義
▼八時 라디오 드라마 放送劇協會
▼九時 名曲鑑賞 레코드 演奏 李光相
(一)安息香(二)오세로의愛 (三)春 (四)秋風感別曲 外(一)時調(二)秋風感別曲(三)사설가 叫歌
▼九時四十分 白牧丹, 柳開東

七月八日(月曜)

▼午後零時五分 古歌 白雲郎과滑

厚 白 臣

▼一時 婦人講座 結婚前後의衛生(一) 張文卿
▼六時卅分 레코드 音樂
▼六時五十五分 產業放送 鎬韶
▼八時 講座 時局解說 朝鮮軍參謀 金光 陸軍少佐 李應俊
(一)防空에對하야國民의心得
(二)國土防空에對하야 陸軍大佐 杉田元
▼八時卅分 小唱 小春香歌 外(一)小春香歌(二)西壁歌(三)생매자어
▼八時五十五分 明媛이 超牧丹, 李竹葉 (四)六字배기
▼九時卅五分 伽倻琴倂唱(一)短歌公道難(二)唱劇水宮歌 丁南希 鼓手韓相鉉

七月九日(火曜)

▼午後零時五分 俗曲(一)김쇠뿔(二)打鈴(三)靑春歌(四)방아타령(五)楊山道 (六)아리랑 崔玉鉉, 李萬香, 咸珠玉 伴奏 崔敬龍, 金用九
▼二時 婦人講座 結婚前後의衛生(二) 張文卿
▼六時三十分 童話劇 (一)고향하늘 (二)나무꾼과 (三)신부는少女 (四)사시가시는누나 (五)옷인녀 내(六)나는피리야 (七)시장아줌 (八)자으로가바 다보자 金昌王, 申孝順, 咸珠玉
▼六時五十五分 講座 朝鮮 蠶業의發達에對하야(一)
▼八時 聖典解說 梨花女專 金活蘭
▼八時三十分 (一)六字배이 (二)興打鈴 (四)개 고리打鈴 趙牡丹, 金蓮紅 伴奏 沈相健
▼九時三十分 朝鮮正樂傳習所 琴譜
▼九時三十分 洋樂

第一放送 (八日)

▲六時三十分 (大)英語講座 (六の三)▲七時一分 (京)朝の修養▲午後零時五分和洋合奏▲二時趣味講座 洋服の着方▲六時(大)お話 大阪の夏祭り▲六時二十五分(東)子ともの新聞▲六時三十五分(東)基礎英語講座(三十九)▲七時三十分(東)講演 ベルリ提督の日本遠征における行動に就て(帝國東大 作 國際親和部)▲八時東京放送交響樂團▲八時四十分(前)河東鳴鶴寶況▲八時五十五分(大)浪花節

从信상시 (五)
구름을잡으려고
(132)
作 朱耀燮
畵 李靑駒

순애는 아무에게도 알을 수 없을만큼 자신이 잇는 것에 섞이지 아니하고 그 소리만 바라다보는 순애의 얼굴에는 갑자기 한번 다시 빛이 떠올랐다. 그러나 아무 것도 볼 수가 없어 「오랫동안 순애 ... 」

다보앗다. 순면으로 보이는 순애 얼굴은 퍽도 변하였다고 소식이 든 새삼스러운 느끼엇다. 더욱이 아마에 솟은 잔주름이 순애로 여자로써의 청춘이 다 지나간 것을 말하엿다.

사실은 별로 내다보는 순애는 이전 전 이십 사오세 때의 그 순애와 비교하여 시든 꽃이 얼마나 먼 것이 있을까. 그러나 이렇게 본 것이 순애 의 운명을 말하는 것이엿다.

「그 재미를 우리는 ...」
「글세 엇기가 ...」

機動發ヒト
農林省推認 商工省獎定
土肥發動機製造所
岡山市下石井(町)

金 京城
金銀 地金 分析 賣買
合資會社 杉山商會
京城明治町 合資會社 杉山商會 電本七四番
高價買入

Columbia
傑作盤
(新民謠) 시집가는님
姜弘植
老怨曲 高一心
레코드 三番 四〇六二
發賣元 株式會社日本蓄音器商會
콜럼비아레코드

강씨 고르든 한광목
태극성광목

新劇座 京城府中央公會堂 七月七日부터三夜連續 二回公開
林仙舞作 林巨正事業篇
時代劇 結婚春秋 全一幕
林仙舞作 不幸中多幸 全一幕
◇宋河大 沈若, 劉福國, 李敬載, 林仙舞, 朴東
◇金仙心, 劉敏福外 歌手總出演
新作劇本上演豫告
林仙舞作 古典劇 二幕
林仙舞作 現代劇 花開街 六幕
金陵人 編 商白館史 二幕
優美館
朝鮮館

キリンビヤホール
朝鮮館

當選謝禮
始興郡學校評議會員
永登浦邑 金泰樂
北面 白寬永
東面 成萬濟
西面 柳建鏞
新東面 成商衡
南面 梁在軾
秀岩面 柳箕馨
君子面 崔俊鴻

當選謝禮
安城郡學校評議會員
朴容觀
(安城面東里)

當選謝禮
公州郡學校評議員 朴準植

靑山膏 옹 히벽고

◆寫眞說明◆

(右上) 하첨동아 소식이 돈 무하든 희극배우 차리•차프린。

【左上】 七백二十六가옷이나 하는 금강석인데 세계에서 제一가는것으로 이번에 미국보석상사가 영국에서 二백五十만원에 사게된것이라는데 [illegible] 세금없이 수입이되엇답니다。

이 석근 모양인데 지금 한창문제를 이르키고 잇는 배우 [illegible]레트•고탈드양과 가서 박아 사진

점점정교해가는 퍼ー마넨트웨이브

근자에 여자들의 머리에대하야 관심이 심각해감을 따러여러가지기계와 방법으로 그저 남이생각도 하지못하는 모양을 만들어내라고 애를 쓰고잇습니다。 사진左下는 「퍼ー마넨트웨ー브」를 만드는 기계앞에 앉인 모형(模型)바른쪽에서이는 吳葉舟양。 圖內는 손으로 시시는 기계。 사진中은 퍼ー마넨트웨ー브의 앞모양과 뒷 모양)

銀座의거리……★

★…吳 葉 舟

배웅의 魔都는 美와 魅力의 殿堂 「부ー근발」의 어둠에 궂지만 流線型스타일의 洋服에 갓하얀게 어메리칸나이스아[illegible]의 蠱惑의 「부ー근발」과 거니는 女子와 男子의 服飾에이르기까지 이거리는 「할리우드」의 一角이요 [illegible]의一角입니다。 [illegible]한 내슈나리슴의 바람은 어데서나 부는듯키 퀘스토푸的 不安으로서는 너무나 明朗한 그들이며 輕快라고 웃어치우거는 너무나 生活의 그들의 步武입니다。

마음은 어데 내슈날로부터 [illegible] 내슈날로 生活形態는 冒險한 「내슈날」로 부터 [illegible] 「어더내슈날」로 이러케나 一九三五年의 銀座를 說明할는지요

어여쁜이 流行을 하얀으로 말한다면 文藝春秋」는 勿論이고 一八三○年代의 「보스치」 形의 帽子 「바ー린부류」로 統一된 스타일이 모다 「클레식」의 現代化이綦行입니다。 明朗하여 時에 맞서하이 洗練된 輕의 躍動銀座의 저녁거리는 그야말로 靑春과 美의 氾濫입니다

◇……

머리는 「파ー마넨트웨브」의 全盛ー流線型의 너울거리는 아침바다의 물결을 생각케하는 自然스러운 「핑가ー웨브」도 더없어 優美합니다。

「가사린헤ー본」의 出現以來 앞머리 가르는 流行이 大端합니다。

化粧도 服飾과같이 그 技巧이나 方式에 잇어 女子의 個身程度를 넘처서 [illegible]的으로 나아가로 特定한 對象에 對한 [illegible]存在의 [illegible] 解消……

[illegible] 銀座의 저녁거리는 마치 歌劇女優의 「어파레이드」의 感激을 늣길수잇게 합니다 [illegible]

修正한것도 갈은면밀한 科學的設計 머리으로부터 발끝까지 各部分의 美의 方程式을 解하여 和美의 交響樂에까지 完成시긴 個性그들의 一顰一笑야말로 그대로 人生과 社會의 表情이 아닐가 합니다。 (八重洲莊)

점점없어저가는 「나이야가라」폭포

[트론트發聯合通信] 미국여 유명한 「나이아가라폭포」는 요새에와서 여러천년동안 물에스처 깍기어로 바위가 긁러떨어지는것이 만허젓다고 하는데 그것을 그냥 내버려두면 폭포는 점점없어저 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야가라공원위원회」(公園委員會)에서는 폭포우에 쑤나와잇는 약五천톤이나되는 큰바위를 「따이나마이트」로 폭파하기로 하엿다합니다。

또 1위원회에서는 바위의 표면이 물에 시달리어 닳어들어가는것을 방지하기위하야 어떤방책을 강구하기로 하엿다 합니다。

철도「레일」밑에 종달새둥지

[암스텔담發聯合通信] 새는가끔이상한곳에다가 집을짓는것인데 이번에 와란(和蘭)남쪽의 「오스」라고하는곳에서 [illegible] 철도의 레일에다가 종달이가 집을짓고사는것을 발견하엿습니다。 아침저녁 할것없이 기차가 소리를내며 [illegible] 지나가도 이종달이는 제 둥지속에서 천연덕스럽게 노래를 부르고잇엇다고。

地方當面問題

慶北 醴泉篇

市街地整理

경북예천은 북으로영주(榮州) 봉화(奉化)와 충북단양(丹陽)을 통하고 동으로 안동(安東)과 서남으로 상주(尙州)에 기차와 자동차가 연락이편하야 경북서에 잇어서 실로유一의 물화집산지(集散地)이매 상업의 발전은 모두게성(開城)의 다음이라할 하며 시가지도 나날이 발전하야 작년말 현재 읍내호수가 一천五백二十一호 인구七천七백十八인에 달하야 현재 [illegible] 住宅의 현상에 비추어 시가지의 시설구획이 정연치아니 三년계획이든 하천호안공사(漢川護岸工事)도 끝낫으나 당국에서는 이제부터는 무엇보다먼저 시가지정리에 착수하야 첫재 배수구(排水溝)(읍내에서 사이생기는것과 시가 뒤시에서나려오는 두가지물)의 설비를 완전히하고 제방(堤防) 부근一대는 매립정리하야 시장을 확장정리하며 시가의 낮은곳에는 매립을 계게하야 시가도로를 정돈한다면 부패된건물도 만흔개량이 잇을것이다。 다음 역전(驛前)一대에도 [illegible]으로하야금 [illegible] 발고 협가로 이반에세 제공하야 건물을 접촉케한다면 이로써 예천은 아시발전하야 현대도시의 면세에 들어잡것이 아닌가 당국과 및 일반공시사재씨의 적극노력을 바라는바이다。

普校移築增級

예천공립보통학교는 내정 十二년에 건축하엿으나 一三 변전이다。 건축당시에도부지가 저습(低濕)하다고 [illegible]의 비나이잇엇는데 지금까지 1앙시내왓으므로 자변수해 당시에는 [illegible] 수수하하야이반으로교사의 너머지정을으려하엿다。 누구나 현상을 볼때 이숙이 염오를 느끼지안느니없다。 게다가 현재 十三학급으로 일년이 시원사의반도 수용지못하니 대개하교로서 여자보통학교를 따로두고 남자하교만도 1九학급이나 되서늘 유독예천에는 남녀공하에 예천면이무 만五천三백 七十一명과보문(普門)호명(虎明) 개포(開浦) 각면 一부에서 통하하는 이웃에 비하야 너무나심하셔이다 적어도 十八학급은 되어야할것이며 예천의뿐아니라 가면보통학교가 거이 학급부속의 상태이나 예천에 잇어서는 이보교이축증급 문제가 시가시정리문제보다 못지안은 초미의 급부이다 당국및 시방인사여! 보교문제를 해결하라 一면一교에따라 자연긴요한 중이교문제에 대하야 예천대창학원(大昌學院)을 중이교로 만들으는동시하여야 늣치안을가 한다。

其他問題

이상긴요한 두가지 문제외에 전기(電氣)가설문제가 잇는바 이것은 대응전기회사에서 벌서시난부十八이에 속방을 약속하고 곧 가설에 착수하리라하니 몇해전부터 곤란다하면서 이때것 끄러오든에 를본다면 금년十二월경에나 실현될는지?그방면의 주속이다 그리고 예천읍에서 각면으로 통하고 각면간통하는 도로가 불완전하며 교량(橋梁)이 없어서 교통불편한곳이 만으니 이에대한시설이필요하며 금년부터 十개년계속사업인 낙동강사방공사에 예천군의 부역(賦役)이부가六만八천명씩 배변나간다 하니 군용의 살하여야할 큰문제이며 공회당(公會堂)도 1계획요하다 승격(昇格)운동에대하야는 다만 현대행정구역정상 면보다 우위라할수잇으나 실제에잇어서는 면민부담이 만허질따름이니 예천으로서는 중요한문제가 아니라 고한다。

新東亞 七月號

冒險特輯

米洲大陸을發見한 컬럼버쓰의 大冒險 …… 辛鳳祚

世界的大航空家 린빠ー과 체펄린 …… 金容瓘

諸氏의冒險談

가지각색의冒險談이 滿載하엿다。 諸氏의 一生에 잇처지지아니하는 가장자미스러운 冒險은 우리에게 말할수없이 興味를 주는것이다

蔡弼近 李仁 李克魯 梁柱三 金允經 朴漢永 金敬注 安在鴻 金昶濟 崔鉉培 金麗植 李萬珪

世界의 動向 …… 高永煥

年中風俗

隨筆

顯忠祠와三賢 …… 金昶濟
아슴아슴한 …… 金俊淵
欲登未登記 …… 卞榮魯
恥堂先生挽 …… 玄相允
바다여 …… 崔永秀
OK목생각하[illegible] …… 李無影
故鄕에다녀와 …… 金元經

亞細亞探險家헤딘博士
海底探險家삐ー부博士
삐ー드少將南極探險記

二百字短評
趣味生活과 돈 …… 閔丙徽
꼬리 …… [illegible]軒求
四月日記에서 …… 宋順益
불라는滿不 …… 朴勝極
倫理笑術 …… 李洽
펜네임 …… 金光洲
雜誌社와文士製造業

二○錢 誌代三十錢

發行所 京城光化門通 新東亞社 振替京城一四五○○番

英語 法律 政治 科學 教育 宗教 醫學 經濟 哲學 文藝 逸話

懸賞問題

럿셀이現代教員에게하는말 …… 崔承萬

大探險家 아문젠翁의生涯와業績 …… 李相晧

釋迦의誕生과人類의文化 …… 金敬注

獨立하는比律賓과米國 …… 東岩生

文武兼全한新羅名將金庾信 …… 金道泰

中國經濟恐慌과中國의外交政策 …… 鞠淳葉

米國의對外政策 …… 許然

滿洲國經濟의發展相과將來 …… 張鉉七

武俠奇談 九死一生의佳緣 …… 李圭鳳

西洋史上勇士列傳 …… 李卯默

우리는本來부터文弱한民族이아니엇다 우리民族의씩씩하엿든武勇을자랑하게는엇

朝鮮史上勇士列傳 …… 金庠基

朝鮮農民文學의根本問題 …… 洪曉民

朝鮮大膽力家史話 …… 金璇根

四新博士及一學士訪問記 …… 金正實

近世朝鮮의社會階級 …… 洪翼範

루스벨트大統領과뉴띨의將來 …… 丁來東

一頁評壇 評壇에一言

美展을보고와서 …… 金周經

歷史깊은學校의(進明女高篇) …… 一記者

初創時話

詩
破調의노래 …… 李洽
夕暮에드리는哀詩 …… 柳致環
片眼名가都會를驅馳한다 …… 徐丙珏
여름밤의旋愁 …… 李瑞海

作家에게되주고받는말
姜敬愛女史께 …… 張赫宙
張赫宙先生께 …… 姜敬愛

創作
破鍾(短篇) …… 趙碧岩
苦悶(長篇) …… 嚴興燮
나루(戲曲) …… 朱永涉

普專校長更迭顚末

哀王端宗小史 …… 張道斌

ClibPDF - www.fastio.com